

給水調整, 洪水와 閘門의 調節管理問題 等 高度의 專門化된 技術者에 依한 運營이라 하여도 그 維持管理에 많은 問題點이 있을 뿐 아니라, 所要技術分野만 하더라도 土木, 機械, 電氣, 農業, 電算, 水文, 化學, 물管理給水 等 많은 分野에 이르는 實情下에서 果然 農地改良組合이 그 各分野의 高級技術要員의 確保를 可能케할 能力이 있을 것인가는 眞摯하게 檢討해 봐야 할 問題라고 指摘하고 싶다. 따라서, 日本이나 臺灣 등에서 施行되는 바와같이 主要한 基幹施設物의 管理는 能力있는 機關에 委託管理 하도록 하고, 農組는 支線以下의 實質的인 配水網組織施設과 組合의 運營에 重點을 두고 있는 維持管理體制를 他山之石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既設施設物의 維持管理問題에 따라 想起되는 것은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機能과 現況이다. 農聯이 會員農組의 福利增進을 目的으로 設立된 것이라면 上述한 바와같이 會員農組의 維持管理의 支援이나 受託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組織과 運用이 要望된다. 現在와 같이 耕地整理와 換地業務의 代行이나 用役을 위한 것이라면 公法人으로서의 農聯의 存立意義는 正當化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農聯은 그 機能과 組織을 強化하여 會員農組의 高度化된 技術支援이나 維持管理業務의 受託代行機關으로서 政府의 積極的인 助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農業土木事業이 單純한 흙과 물의 調和로써만 이룩되었던 時代는 이미 지났고 그 規模와 範圍가 漸次 巨大化되고 複雜多難하여 가는 趨勢에 놓여 있으며, 이에 對處할 高度化된 技術의 開發 또한 時急함을 再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例컨대, 물의 量에 못지않게 質 即 汚染과 富營養이라는 問題가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며, 自然生態界의 變化와 環境保全이라는 새로운 分野의 複雜한 問題를 가져오게 한다. 即, 洛東江의 河口堰工事に 따른 乙淑島의 生態界保存問題나 서울 高德地區의 大單位宅地開發에 따른 漢江上水道源의 汚染과 環境破壞問題 또는 榮山江 河口堰完工에 따른 木浦市, 周邊의 高潮位現象 等은 이미 널리 報道된 例의 一部라고 하겠다.